

Power-Gen International 2006 참관기(2)

김준섭 | 진영이엠테크(주) 대표이사(jskim@jyemt.com)



그림 1. Power-Gen International 2006 전시장 입구 모습



그림 2. PGI 2006 한국 참관단

대한전기협회의 소개로 알게 된 세계적인 발전설비 전시회인 Power-Gen International (PGI) 2006 (11.28-30, 미국 Florida주 Orlando)에 참관단의 일원으로서 참가하게 되었다. PGI는 세계 최대의 발전설비 전시회로, 다른 대륙에서도 열리는데 금번에 방문한 미국에서 개최된 Power-Gen Show가 가장 큰 규모라 한다. 특히, PGI 2005에 전 세계 75국에서 1,100여개의 세계적인 유명 회사가 전시에 참가하였고 발전 산업 관계자 16,000여명이 참관 하였다고 하니 가히 세계적인 전시회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 방문 하게 된 참관단의 경우도 협회 관계자 외 당사와 같은 발전 산업관련 전문 중소기업들과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중부

발전 같은 국내 핵심 발전회사의 우수한 관계자들로서 30명 정도로 대규모로 구성되다 보니 우리 참관단의 규모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는 본 PGI를 상무부 공식지원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Buyer Program (IBP)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기에,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부에서는 우리 한국 참관단을 위해 전시회 사전등록, International Reception 초대, 상무부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활용을 통한 관계자 Meeting 및 발전소 방문이라는 많은 준비를 해주어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Power-Gen 내부 모습

다음은 PGI 2006의 주요 행사와 우리가 방문했던 발전소 관련 내용이다.

11월 28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방문한 PGI Conference Convention Center는 거대한 본 건물 외벽 전체를 밝은 흰색으로 마무리를 하여 미국에서 가장 좋은 날씨를 보유하고 있다는 FLORIDA주 ORLANDO시와 아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다. 건물 안으로 참관단이 함께 입장 한 후 협회와 미 대사관 상무부의 협조로 Pre-Registration이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참관단은 별다른 기다림 없이 행사장 안에 들어 갈 수 있었다. 전시장 안은 일반적인 행사의 전시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규모면에 비해 상당히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수많은 전시장 관계자들의 안내로 인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돌아 볼 수 있었다.

전시장 입장 후 우리 참관단은 PGI Opening Keynote Session을 필두로 미 대사관 상무부에서 주최한 관계자 Meeting등 오전 내내 바쁜 일정을 보냈다.

우리 참관단의 경우 각자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전공과 관심사 등이 상이한 관계로 오후 부터는 개인별 참관을 하기로 하였다. 국내 발전회사의 관계자 분들은 HRSG, GTUS등 고급 Conference Session등을 경청하였고 필자는 임하고 있는 업이 Turbine Blade 제조인 관계로 전시장내 관련 부스를 방문하고 둘러보는



그림 4. 당사에서 국내외 OEM으로 제작하는 Item과 유사한 Turbine Blade

데 주로 시간을 할애 하였다. 지난 이야기지만 엄청 큰 규모의 전시장 관계로 이를 동안 둘러보면서 보람은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많이 아팠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당사의 주요 제품이 발전용 Turbine에 사용되는 Blade인 관계로 필자는 주로 국내외 거래처를 중심으로 GE, SIEMENSE 및 MITSUBISHI 등 세계적인 Turbine Maker사와 After Market을 Target으로 하는 선진 기술사들을 주로 둘러 보았다. 당사와 관련된 부스들을 돌아보면서 당사에서 20여년 동안 해왔던 기술축적을 선진사들과 비교하여 보니 크게 어색한 점이 없이 여겨졌다. 또한, 부스들 중 당사의 국내 주요 OEM 고객인 두산중공업이 커다란 부스를 할애하여 한껏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서 언젠가는 국내 대기업과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이 상생(相生)이라는 모토로 함께 세계시장에서 특히, 본 PGI와 같은 유명 전시회에 함께 참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선진 발전소를 방문

이를 동안 분주한 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ORLANDO 근처 Technical Tour의 일환으로 복합화력인 KISSIMMEE Utility Authority(KUA의 Cane Island)와 TAMPA Electric사의 IGCC 발전소인 POLK POWER STATION을 방문 하였다. 본 참관단이 대규모인 관계로 2개조로 나누어 각각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KUA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 KUA는 총 발전용량 410MW로서 총 3 Unit의 Engine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부 GE에서 설치하였다고 한다. 모델은 LM6000, Frame 7EA 및 7FA의 복합 화력용 Gas Turbine과 Steam

Turbine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설치에서부터 설비 유지 보수까지 전부 GE service를 이용한다고 하니 국내와는 이용 환경이 사뭇 다르고 색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내 발전소에 비해 규모면에서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모든 Equipment들이 설치되어 있어 과연 미국적 실용주의 사고방식으로 지어진 발전소 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시점에 Steam 및 Gas Turbine관련 Overhaul 공사가 일부 line에서 진행 중에 있었다. Blade제조에만 몰두하다 이런 선진 기술의 집합체인 복합화력 발전소를 미국 땅에서 보게 되어 신기하기만 하였다.



시차적응도 채 되지 않은 몸으로 새벽부터 Conference 참가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각 발전회사 팀장님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업체 사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시차적응 및 딱딱한 전시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기 위해 미국 내에서도 선진 관광지인 UNIVERSAL STUDIO,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경이롭게 표현한 SEA WORLD등 ORLANDO의 좋은 곳을 다 보여주기 위해 헌신했던 여행사 Guide 이진희 실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향후 기회가 다시 된다면 매년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PGI 인 것 같다.

마무리

끝으로 뻘뻘한 일정 속에도 행사 준비에서 귀국시 까지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부회장님과 안영태 팀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주신 미국 대사관 이용탁 선임 상무관님께도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국내 발전 산업과 운영을 위해



- 1976년 11월 19일 마산출생
- 2002년 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 공학과 졸업
- 2002년 진영이엠테크(주) 입사
- 2003년 3월 ~ 2006년 3월 기획실장 역임
- 2006년 4월 ~ 현재 진영이엠테크 대표이사
- 현, 이노비즈협회, 무역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혁신클러스트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중임.